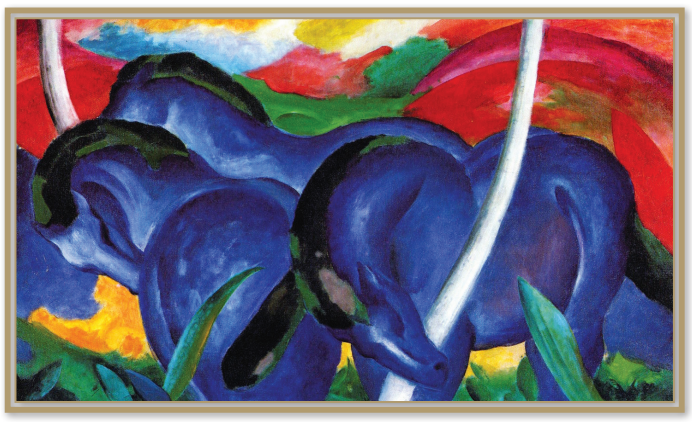
▣ 그림 여행



푸른 말 (Blue Horses c. 1911)

프란츠 마르크(Franz Marc 1880 - 1916)

(캔버스에 유채 105.7 cm x 181.2 cm 미니애폴리스 워커 아트 센터)

독일 표현주의 화가들 중에서도 프란츠 마르크의 그림은 독특한 개성을 보여준다. 밝고 투명한 색채와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선, 생명력에 가득 찬 율동감이 그의 그림의 특징이다. 그는 원색을 선호했고, 특히 빨강, 파랑, 노랑을 즐겨 사용했다. 강력한 원색이지만 함께 어우러진 색채는 맑고 부드러웠다. 그림의 주제로는 자연 속의 동물이 자주 등장했다. 그 중에서도 청색 말을 그린 그림들은 너무나 유명하다. 청색 말을 타고 달린다는 뜻이었는지 '청기사파' 라는 미술 그룹을 결성했으며 '청기사 연감' 이라는 잡지를 공동집필하기도 했다.

'푸른 말' 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그의 작품세계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 화면을 가득 채운 세 마리 푸른 말은 모두 등을 굽히고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있다. 프란츠 마르크의 그림 속에서 파란색은 남성성과 영성을 상징하며, 노란색은 여성성과 기쁨, 그리고 빨간색은 위험과 폭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투명하고 맑은 파란색 말들은 마치 저 멀리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이 세상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뭔지 모를 불안을 조성하는 붉은 색에도 불구하고 화면은 완만한 곡선으로 가득 차 시선은 그림 전체로 부드럽게 흐른다. 위험과 폭력이 위협하는 세상이라도 만물은 하나의 조화 속에 어우러져 있다는 메시지 같다.

그가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 유럽의 정세는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눈앞에 두고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마침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르크는 독일군에 입대한다. 그는 전장으로부터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 내용 속에는 이 '푸른 말'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그림은 전쟁의 예감이었소.'

'청기사' 는 전선에서 서른여섯의 나이로 전사했다. 다가오는 위험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푸른 말의 모습 속에 젊은 화가의 순수한 모습이 투영된다. 생명의 환희와 아름다움, 격정과 힘을 표현하고자 노력했으나 전쟁의 비극 속에 희생된 아까운 예술가의 운명을 생각하면 비통한 마음을 막을 수 없다.

《김동백》